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남다른 독자가었던 법정(法頂)은 그가 쓴 책 속에 독자에 관한 어록을 꽤 많이 남겼다. “비 오는 날은 소설을 읽고 싶고, 시는 꽃잎이 앉아서 읽지 말고 누워서 먼 산을 바라보며 두런두런 소리 내어 읽어야 제 맛이 난다.”, “나는 이 계절에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이다. 술을 읽히는 책 말고, 읽다가 자꾸만 덮이는 그런 책을 골라 읽을 것이다. 한두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기 때문이다. 그 한 권의 책이 때로는 번쩍 내 눈을 뜨게 하고, 안이해지려는 내 일상을 깨우쳐 준다.”

법정은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다. 법정의 책은 그 하나하나가 속세의 사람들을 향한 법문에 다름없었다. 법정이 열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도의 물결을 이루었던 것도 그 대부분이 책을 통한 인연 때문이었다.

“법정은 무소유를 말하지만, ‘무소유’란 책만은 꼭 갖고 싶다”고 김수환 추기경이 말할 정도로 그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꼭 갖고 싶은 책이었다. 그런데 법정은 왜 자신의 모든 책들을 절판하러 했을까. 유언장에는 “그동안 풀어놓은 말뱃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고만 되어있다.

나는 법정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알 법한 사람을 만나 물어보기도 했고, 지면을 통해서도 그 뜻을 헤아려 보려고 애썼다.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다. “관권을 가지고 서로 다루는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배기를 막아 놓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책 속에서 참된 지

법정은 왜 책을 절판하러 했을까

혜를 깨닫지 못하고 좋은 말만 챙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죽비의 경책이다.”

혹자는 말은 사람의 영혼인데, 말로써 평생을 산 법정이 더 이상 말로서는 진리를 향해 갈 수 없다는 인간 한계를 깨닫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참회하며 떠나는 법정의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냐고, 절판유언을 용서해 드리자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 말의 관리자들에 법정의 유언이 죽비가 되어 어깨를 후려치는 것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8만4000의 법문을 설교한 부처가 “나는 한마디도 설법한 일이 없다”고 한 사실을 들어 오랜 전통의 선불교(禪佛敎)의 정신으로 그 유언을 이해하려 했다. 근본에 이르는 길과 그 방편은 말과 글에 담을 수 있어도, 근본 그 자체는 불립문자(不立文字)요, 언어도단이라 도저히 필설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법정은 그런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의 유언은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자 화두 ‘무(無)’자의 경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독자가 모두 불자만이 아니요, 설사 불자들이라고 해도 해탈한 사

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진리의 피안에 이르거든 거기까지 타고 온 뱀뚨는 버리라는(捨筏登岸) 말이 들어오어도, 처음부터 책을 버리라는 얘기는 일찍이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말뱃’이란 말이 처음 그의 책에 보이는 것은 1982년에 나온 ‘말과 침묵’의 서문이다. 석가모니의 설법과 조사들의 어록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메모해 두었던 것을 정리하여 책으로 내는데, 그동안 산의 일이 많아 ‘말뱃’을 뒤늦게 갈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값

아야 할 ‘말뱃’과 유언장의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말뱃’은 그 뜻이 확연하게 다르다. 유언장에서 말하는 ‘말뱃’의 뜻은 무엇일까.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이 그 ‘말뱃’에 대해 쓴 글이 있다. “내 삶의 자취를 돌아보니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기회 있을 때마다 침묵의 미덕과 그 의미를 강조해 온 장본인이 침묵보다 말로 살아온 것 같은 모순을 돌이켜 본다. ...서거를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쓴 글들이 번역물을 포함해서 서른 권 가까이 되구나. 말을 너무 많이 해 왔듯이 글을 너무 많이 쏟아놓은 것 같다. 세월의 체에 걸려서 남을 글이 얼마나 될지 자못 두렵다.”(“홀로서는 즐거움” 샘터사, 2004)

여기에 비추어보면 그의 유언은 자신의 말과 글이 삶의 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더구나 침묵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말을 많이 한데 대한 반성과 후회의 표현으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소유’가 ‘읽매인’이 되듯이 ‘말’을 많이 해서 그것이 큰 ‘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그 말의 뱃을 내생까지의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을 모두 절판하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너무 지나쳤다. 그의 뜻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가을, 그의 글을 읽고 싶다.

〈연문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부실 인구통계로 올바른 정책 나오겠는가

전남도와 통계청의 전남지역 인구 미래 추계가 크게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다. 오는 2030년 전남 인구를 전남발전연구원이 204만 명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 기관인 통계청은 13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기관 간의 차이가 무려 7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극과 극을 달린 전발연과 통계청의 인구 추계는 통계 작성기간이나 방법 등 기법상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부실 또는 ‘행위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통계청의 전남 장래인구 추계는 과거에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지난 2007년 작성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10년 전남 인구를 174만 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올해 전남인구는 192만 명에 이르고 있다. 불과 5년 후의 인구 전망에 20만 명 가까운 오차가 생긴 것이다.

주먹구구식 인구 추계는 전발연도 크

게 다르지 않다. 전발연이 인구 10만 8000 명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 무안·곡·중계산업단지는 애초 계획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는 극히 일부분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전에서 ‘행위기’ 논란은 당연하다 하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작성한 통계에 부실한 경우가 많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부정확한 결론을 내려 예산 낭비와 정책혼선을 빚은 경우도 흔했다. 이런 부실 통계조사를 왜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매대한 예산을 들여 통계를 내는 이유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우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행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부실하다면 이는 192만 명에 이르고 있다. 불과 5년 후의 인구 전망에 20만 명 가까운 오차가 생긴 것이다. 주먹구구식 인구 추계는 전발연도 크

증심사 상가지구 ‘난장판’ 개선책 찾아야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상가 주변은 주말과 휴일이면 으레 난장판이 된다. 좁은 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오가고, 상가 손님과 등산객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룬다. 도로 길이가 200m에 불과하고, 폭도 6m로 비좁은데다 이면 도로 마저 없다 보니 움푹달락 못하는 상판이 연출된다.

또 상가 앞에는 주차 등으로 인해 차량들이 진출입 하는데 전·후진을 반복해야 하고, 겨우 진입해도 밀려든 등산객들을 피하기 위해 경보음을 울리기 일쑤다. 차량 운전자들끼리 시비가 벌어져 욕설을 하고 싸우는 일도 예사다. 등산객이나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이러한 혼란 탓에 모처럼 찾은 상행이나 나들이가 불쾌하기만 하다. 관광버스를 동원해 무등산을 찾은 전국 각지의 등산객들에게 광주 이미지가 좋을 리 없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차량 통제나 이면도로 개설 등 개선책을 찾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넓은 공원주차

장을 확보하고서도 차량들의 상가지구 진출입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원주차장은 좁혀 수백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임에도 텅텅 비어 있다.

물론 공원주차장이 30분에 400원을 받는 유료인데다 상가에서 800m 가량 떨어져 있어 승객들이 오가는 데 불편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은 비어 있고, 주차할 수 없는 곳이 난장판을 이룬다면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료 주차가 부담이 된다면 낮추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승객들 역시 노약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800m 정도 걸어가는 것은 보기도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상가들도 차량 통제가 어느 정도 매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정적이 된다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광주시는 이면도로 개설에 난색만 표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음부즈맨 칼럼

안재오



제46회 광주 아시아게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아시아지역 45개국, 1만2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지난 12일 개막해 16일 동안 아시아대륙의 이목을 중국에 집중시켰던 아시아게임은 4년 뒤를 기약하며 2014년 대회 개최지인 인천에 대회를 넘겨줬다.

한국 선수단은 41종목에 1013명의 일원과 선수가 참가해 금 76, 은 65, 동 91개를 획득하며 역대 원정 대회 중 최고의 성적으로 금 48개, 은 74개, 동 94개를 획득한 일본을 제치고 4회 연속 종합 2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은 이번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신문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받아들이고, 의식과 공동의 문화형 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선수와 지도자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반자이면서 서로에게 조연자의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와 독자의 관계도 때로는 선수로, 때로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때 비로소 서로에게 발전과 희망을 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광주일보는 동반자인 독자들을

젊고 독창적이고 차별화 된 광주일보를

아시아 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을 통해 다가오는 런던올림픽에서의 메달 가능성에 희망을 밝히고 있다.

2010 광주 아시아게임에서는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수영의 정다래, 바둑의 이슬아, 당구의 차유람 등 ‘얼얼’ 스타들이 주목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이 미모를 뛰어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아시아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최고의 자리에 서었다는 사실만을 볼 뿐, 그들이 시상대에 설 수 있기까지의 보이지 않은 고통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선수가 경쟁에서 승리하여 정상에 도달하기까지는 자신의 자질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선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선수 옆에는 언제나 같이 호흡하며 선수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지도와 뒷바라지를 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비로소 팀과 개인의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신문도 선수와 지도자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독자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신문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입장, 견해, 태도를 표명하여 독자들을 설득하고 계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신문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받아들이고, 의식과 공동의 문화형 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매체 속에서 광주일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독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욕구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신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그들이 신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문은 신문 자체만으로는 성장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신문의 자질도 중요하겠지만 결에서 지켜주고 단련시켜줄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끊임없는 열정과 성실성, 성공을 향한 끝없는 자기 단련 등을 통하여 다른 일간지들과 차별화된 젊고 독창적인 브랜드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 진정한 독자가 원하는 광주일보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광주일보 독자위원·광주시체육회 훈련계장>

NGO 칼럼

장식



혁신적인 물질문명의 발달은 인간에게 최대의 편의와 복지를 가져왔지만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공허감과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다. 노인은 더 외로워졌고, 어린이들은 더욱 영악해져 가고 있고, 어른들은 더욱 더 무기력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우울적 충동에 노출돼 있다.

생명의전화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외로움과 고독으로 파생된 우울증상으로 괴로워하며 무기력을 호소한다. 그 중에 상담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여 죽고만

소외될 때가 얼마든지 있다. 현대인의 생활은 적대감과 질시, 배려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친한 관계 속에서도 경쟁과 적대감이 오히려 그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은 심한 고독과 우울이란 병에 직면해 있다. 심리학자와 상담 전문가에 의하면 고독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알콜·마약 중독 그리고 정신·육체적 병이 모두 고독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생명의전화는 그런 의미에서 소외와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살다.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할 때이다. 그러다 보면 장시간 상담하는 일이 자주 발생된다.

우리는 낮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외된 세상이며 적대감과 질시 경쟁이 치열하게 넘치는 세상이기도 하다.

이들에게는 모르는 사람과 함부로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가르치며 친절 한 선행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서로 문을 꼭 잠그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답을 더욱 높게 쌓는다. 낯선 사람들 이란, 우리가 알 수 없고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친해지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서로 아는 사람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회사의 각 부서의 직원들, 한 목적을 위해 일하는 봉사 단체들, 경쟁이나 질투로 서로

개인적 우울 속에서 고독의 아픔을 느끼는 이들의 상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자 한다.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이라는 말처럼 365일 24시간 1588-9191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조그만 소리까지 마음과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공감한다.

‘이사소통’의 본질은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소통이 없다면 말의 형식이 어떠한지 인간은 홀로이다.’라는 말이 있다. 핸드폰, 인터넷이 소통을 위한 것이지만 현대인들은 나 홀로 기계에게만 시선을 주고 있을 뿐 정작 필요로 하는 인간의 따뜻한 체취와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너무 바쁘게 한 살아 갈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부모, 형제, 친구에게 따뜻한 전화 목소리라도 자주 들려주는 배려와 관심이 절실한 요구된다.

<광주 생명의 전화 실장>

서민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문턱 낮췄으면

소상공인들은 대형 마트에 밀려 쫓겨나다 시피 하고, 직장인들은 박봉과 구조조정으로 힘들어 한다. 하지만 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지난 2006년 개발도상국 방글라데시의 한 은행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 은행은 서민들에게 낮은 이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무담보 소액창업대출 사업을 벌여 자활을 통한 빈곤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 사업은 이미 수십 년 전 금융 후진국에서 창안돼 온 세계에 전파된 대안금

용 제도의 하나이다. 지금은 선진국의 거대 금융기관들조차도 진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고객들의 주머니나 털어 잊속 채우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담보도 신용도 없으면 결국 금융 빈곤층으로 전락해 사채 시장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배부른 은행들이 부유층만 상대하는 금융 시스템에서 탈피,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다. ▲문통기·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無等鼓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수습책으로 6자회담이 대두됐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28일 외교부 ‘중대 발표’를 통해 6자회담 논의의 제의를 하였다.

남·북한과 중국·미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안보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6개국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6자회담을 지난 2007년 6차 회의 이후 휴지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중국의 제의는 12월 초순 참가국 대표가 만나 의제 설정 등 준비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영토 침탈과 주민 살상으로 준전시 상태의 충격에 빠진 우리에게 중국의 중재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천안함 침몰 이후 대북 감정이 악화된 터에 연평도 사건 닷새 만에 날아든 회담 제의를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6자회담이 열릴 때마다 회의 장인 베이징의 한 건물이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바로 중국 국민관인 다오위

타이(釣魚臺)다. 다오위타이는 800여년 전 금나라의 황제 장종(章宗)이 낚시를 즐겼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제들이 쉬어가는 행궁으로 사용됐던 이곳은 특히 명나라 영락제나 청나라 건륭제에 애착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오위타이 가운데에서도 즐근 6자회담장으로 이용된 광웨이위엔(芳菲苑)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바로 지난 1992년 8월 한중 수교 합의가 이뤄졌던 장소다. 광웨이위엔에서 가장 대표인 천연링팅(千天廳)은 각각 대표단의 좌석이 6각형으로 배치돼 대회의장으로 사용돼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연평도를 도발한 북한이 국제여론이 불리해지자 민간인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지만 진정성을 찾기는 어렵다. 우리 국민 감정에 우선 필요한 것은 진정성 사이다. 다오위타이 광웨이위엔의 문을 열게하는 아직 ‘주변 날씨’가 너무 차갑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조어대(釣魚臺)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채우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제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